

무용예술학연구 제22집 가을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 변화와 정재 연희종목 양상 연구*

안 병 주
경희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V. 맺음말
II. 문화정책의 의미와 역할	참고문헌
III.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변화와 정재 연희종목 양상	Abstract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시대의 무용문화(舞踊文化)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회문화적 맥락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서 생겨난 문화활동의 한 결과이다. 물론 한 시대의 무용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무용자체의 내재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적 연구(分析的 研究)영역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결실 또한 한층 충실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¹⁾

한국 춤의 역사 중 조선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궁중정재의 변화와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조선시대에는 예(禮)·악(樂)·형(刑)·정(政)을 통달해야 왕 도를 갖춘다고 하면서 예의(禮儀)로 민심을 조절하고, 음악(音樂)으로 백성의 소리를 조화시키며, 정치(政治)로 행실을 한결같이 하여 예악(禮樂)의 교화를 시행하고

* 이 논문은 2005년도 경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This thesis was supported by the Kyunghee University grant).

1) 宋芳松(1980). 『樂掌譜錄研究』, 民族文化叢書 8(京山: 嶺南大學校 民俗文化研究所), p. 3.

형벌(刑罰)로 간사함을 막는 것²⁾으로 사회에 미치는 예악의 영향을 중요시했다.

조선사회 유교적 덕목과 교양을 갖춘 문관 내지 독서인 중심의 이른바 양반관료 사회였다는 점은 춤의 기록문화 형성에 매우 귀중한 기여³⁾를 하였던 만큼 역사적 의미에서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정재는 왕궁문화의 산물이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민족의식을 반영하고 중국적 예악전통의 조선조적 변용이라는 주체적 민족관을 굳건히 하였던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제적인 연구실태는 정재의 종목 및 연무동기(演舞動機) 또는 희무실상(戲舞實相)에 관계하는 무도(舞圖)에 편중되어 있을 뿐 정치·사회·문화의 특징과 관련하여 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희병(2005)은 박사논문인 “조선시대 정재의 악정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시대 정재의 중요한 전환이 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전기(前期: 태조-성종), 중기(中期: 연산군-정조), 후기(後期: 순조-갑오경장 이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고찰하고 전기를 확립기(確立期: 1392-1494), 중기를 전환기(轉換期: 1494-1800), 후기를 중흥기(中興期: 1800-1894)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 전기는 확립기라고 명명될 만큼 유교적 통치이념에 따른 예악사상에 입각하여 정치·사회·사상·예술 등 모든 면에서 제도가 확립되었고, 이와 더불어 문화정책기관이 정비되는 근간이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에 접어들면서 왜란이나 호란과 같은 잦은 국란은 물론 사회·당쟁 등의 국가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전기의 문화정책이 안정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중기에 들어서는 국가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특히 영조 때부터 조선시대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손실되었던 문화를 복원하고 발전시켜 찬란한 조선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조선시대를 다룬 선행연구 동향을 고찰한 결과 문화정책이 활성화되었던 조선 전기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으며, 침체적인 경향을 보였던 조선중기나 중흥기라 할 수 있는 조선 후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연구실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2) 성기숙(2001), 조선 후기 궁중정재의 극장공간성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제29호, p. 138.

3) 위의 글, p. 138.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문화정책기관과 정재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그간 연구 성과가 부족했던 조선 중·후기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문화사적 배경과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의 변화와 정재 연희종목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조선시대의 정재연구에 있어 특정시기에 편중되어져온 연구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사료가 될 것이며, 또한 문화사적의 배경과 정책기관 및 정재연희종목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침체기와 중흥기의 변화에 대한 연유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조선 중·후기에 대한 연구가 추가 수행되어짐으로써 조선시대의 전체적인 문화사적 연구가 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2. 연구방법

조선 중·후기 왕조에 따른 문화정책과 정재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사료 등 문헌을 중심으로 먼저 문화정책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문화정책과 조선 중·후기문화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조선 중·후기 예(禮)·악(樂)제도를 관장하였던 문화정책기관과 당대에 연희된 정재를 연구함으로써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과 정재에 대한 그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종합 정리되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왕조에 따른 문화정책과 정재 연희종목의 양상에 대해 도출하였다.

3. 연구범위 및 제한점

조선 중·후기 왕조에 따른 문화정책변화와 정재연희 종목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 및 제한점을 둔다.

한국 춤의 역사 중 정재의 변화와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던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삼았고, 특히 문화정책과 정재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에 있어 연구 성과가 미약했던 조선 중·후기만을 연구범위로 제한하였다. 이는 조선 전기에서부터 이어져온 조선 중·후기의 문화사적 배경과 문화정책 변화에 따른 정재 연희종목 양상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재종목별로 구체적인 춤의 구조, 음악, 의상 등 춤 내용과 형식에 관한 분석은 배제하고 본 논제의 방향에 맞추어 정재 연희종목의 변화양상만을 분석하는 것에 제한점을 두었다.

II. 문화정책의 의미와 역할

정책(政策)이란 정부기관이 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가치와 실재를 투사해서 얻은 행동지침을 의미⁴⁾한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부·단체·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할 방침⁵⁾을 일컬으나 실제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다. 21C로 진입하면서 문화의 세기, 혹은 문화전쟁의 시대라는 담론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담론들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문화산업은 정보화시대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1C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산업화를 실현하기 이전에 그 기저가 되는 주요정책의 확립이 중요시된 시점에 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현대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일면으로서 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거론되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文化; culture)라는 개념은 학자들의 일치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의미가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 중에서도 타일러(Edward B. Tylor)가 총체론적 견해에 입각하여 제시한 바에 의하면 “지식·신앙·예술·법률·관습 및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

4)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8). 『문화예술총서 10-문화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11.

5) 네이버, 백과사전.

해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⁶⁾라는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단일개념의 복합체로서 결국 문화정책(文化政策; cultural policy)이란 문화와 관련된 공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가치와 실재를 투사해서 얻은 행동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문화정책의 역할은 예술의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문화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다. 좁은 의미로 문화를 정의할 경우 문화는 고급예술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바라볼 경우에는 인간의 모든 의식활동과 일상활동의 총체로 인식할 수 있다. 과거의 문화정책이 주로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부여받은 모든 대중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정책은 또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구체적인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감성의 해방을 위한 사회를 지향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적 차이들이 인정되고 문화적 감수성이 차별받지 않으며 문화적 접근과 참여를 보장받게 만드는 것이다. 문화적 접근과 참여의 기회는 현존하는 문화적 자원들을 분배하고, 문화적 삶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사회의 문화적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면 될수록 문화정책은 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⁷⁾

이동연(2004)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지었다. 첫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 남한 정부 출범부터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전두환에 의해 군부정권이 재생산되어 노태우 정권까지 지속된 기간으로 시기로는 1980년대 초에서 1992년까지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2002년 참여정부에 이르는 시기이다. 물론 문화정책의 역사는 문민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로 이분화 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분해서 시기 구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은 ‘문

6) 위의 글, p. 11.

7) 이동연(2004).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6, 민주사회정책연구원, p. 2.

화'를 바라보는 국가정책의 기본 인식의 변화의 관점에서이다. 거칠게 구분하는 한계는 있겠지만, 첫 번째 시기를 검열로서의 문화정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기는 동화로서의 문화정책이고, 세 번째 시기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주적 문화정책의 시기라고 정의⁸⁾할 수 있다.

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문화정책의 역사에 있어 초입단계는 해방이후 남한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태동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그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시기에 해당되는 조선시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화 발전된 문화정책의 개념이 성립되지 못했던 시기였다고 보여 질수도 있다. 그러나 악정(樂政)·예악(禮樂)등의 유사 용어가 조선시대에 쓰여졌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에도 악(樂)·가(歌)·무(舞)를 관장하는 형태의 문화정책기관이 존재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III.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변화와 정재 연희종목 양상

1. 조선 중·후기 문화사적 배경

조선 전·중·후기의 문화사적 배경은 왕조의 변천에 따라 확립기, 변질기, 정비기, 안정기, 침체기, 격동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선 전기의 문화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태조는 창업기(創業期)로서, 국호를 정하

<표 1> 조선 전·중·후기의 문화사적 배경

시 기	문화사적 배경	
전기 (1392-1494)	태조(太祖) 성종(成宗)	확립기
중기 (1494-1800)	연산군(燕山君) 선조(宣祖)	변질기
	광해군(光海君) 숙종(肅宗)	정비기
	영조(英祖) 정조(正祖)	안정기
후기 (1800-1894)	순조(純祖) 철종(哲宗)	침체기
	고종(高宗) 순종(純宗)	격동기

8) 위의 글 p. 2.

고 도움을 옹기며, 정치이념을 내세우고 문물제도를 정비함에 주력하였다. 이때는 개국공신(開國功臣)이 실권을 장악하고 제도정비를 주도하였고, 통치이념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국공신들의 세력 증대는 왕실과 알력을 빚었고, 두 차례에 걸쳐 왕자의 난이 일어나, 방원이 태종으로 왕위에 올랐다.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하륜(河崙)·권근(權近)의 도움을 받아 왕권중심으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관제를 개편하여 관료제도를 정비하였다. 양전사업(量田事業)을 강화하고 사원경제(寺院經濟)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여 국가의 재정기반을 굳혔으며, 조세·신분·호적제도를 개혁하여 양인(良人)을 늘리고 국역(國役)기반을 확대하였다. 태종 때에 다져진 정치·경제·군사적 안정을 바탕으로 세종 때에는 문화의 융성기를 맞았다.

세종은 모범적인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구현하고자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유관(柳寬) 등과 같은 청렴하고 노련한 재상을 등용하여 민의(民意)에 부합된 정치를 하였다. 아울러 집현전을 학술기관으로 확장하여 성삼문(成三問)·신숙주(申叔舟) 등의 젊고 재주 있는 학자들로 하여금 고금의 문물제도를 깊이 연구하게 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하였으며, 한글을 창제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국민복지 향상에도 유의하여 조세 형벌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의창(義倉)제도를 실시하였고, 측우기(測雨器)를 비롯한 각종 과학기계를 발명하였으며, 아악(雅樂)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토확장에도 힘을 기울여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동북지방을 개척하여 6진(六鎭)을 설치하였고, 최윤덕(崔潤德)으로 하여금 서북지방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4군(四郡)을 설치하였다.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섬[對馬島]을 정벌하고, 3포(三浦)를 열어 일본과 제한된 무역을 하였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 단종이 즉위하였으나, 병약하고 연소하여 김종서 등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이에 무력을 통해 세조(世祖) 즉,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세조는 단종의 복위를 꾀한 사육신(死六臣) 등을 제거하고 동북지방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반란을 진압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어 부국강병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력을 키우는 데 힘썼으며,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하여 국가수입을 늘렸고, 조직적이며 통일된 법전의 마련을 위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에 착수하였고

민심을 수렴하고자 배불정책을 완화하여 원각사(圓覺寺)를 건조하고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여 불경을 간행하였다. 성종 때에는 조선의 문물제도가 완성되었다. 특히, 유학을 장려하여 홍문관(弘文館) 독서당(讀書堂)을 설치하고, 서거정(徐居正) 등의 보필을 받아 『동국통감(東國通鑑)』을 비롯한 여러 서적을 편찬하였다. 또한 『경국대전』을 완성, 국가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김종직(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사람을 등용하며 훈구(勳舊) 세력의 강화를 견제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15세기의 찬란했던 문화예술은 16세기인 연산군(燕山君: 1495-1505)시대 이후로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사회(士禍)에 이어 당쟁(黨爭)이 발생하여 지도층이 분열되었으며, 또 정치이념으로 등장되었던 성리학(性理學)이 점차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빠져들게 되어 전기의 문화는 점차 잠정적인 후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산군(燕山君)의 유연(遊宴)은 전고미문(前古未聞)의 황락(荒樂)이었다. 태조건국으로부터 성종까지 근 1세기동안 쌓아올린 악정(樂政)이 짓밟히는 반면 음락(淫樂)이 풍미하였다. 연산군 10년에는 각도 대소읍(大小邑)에 기악(伎樂)을 두어 운평(運平)⁹⁾ 300명을 도성에 들이고 채홍사·채청사를 각도에 파견시켜 미녀를 뽑아 올렸으며, 11년에는 장악원(掌樂院)을 원각사(圓覺寺)으로 옮기는 동시에 가흥청(假興淸)¹⁰⁾ 200, 운평 1천 광희 1천 등을 두고서 음률을 익히게 하였으며 이밖에도 연산군의 난폭과 그 피해는 형언할 수 없었고 일조에 무너지고 만 셈이었다.

또 광해군(光海君: 1608-1623)의 비정(秕政)은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그리고 이괄의 난(李适之亂: 1624), 인조5년(1627)의 정묘호란(丁卯胡亂), 인조 14년(1636)의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등, 국세(國勢)는 견잡을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¹¹⁾ 정치적으로는 16세기 중반 명종비 인순왕후의 동생 심의겸과 신진 사류 김효원의 암투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시작된 봉당정치가 17세기초 인조 1년(1632)에 서인 일파가 광해군과 집권당인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을 왕으로 모

9) 운평(運平) : 기생의 칭호.

10) 가흥청(假興淸) : 내입자(內入者)의 칭호.

11) 안제승(1987). 『한국무용사』, 경희대학교 출판국, p. 48.

신 사건인 인조반정이 이어지고 효종(1659)의 죽음으로 1년 상과 3년 상의 예법에 대한 송사와 논쟁으로 인해 남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고 다시 17세기 후반 숙종 9년(1683)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는 등 이후에 정치권의 많은 혼란상을 보이다가 영·정조의 탕평책에 의해 이러한 봉당 정치의 당쟁이 다소 완화되기도 하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다.

양차 대란(大亂)을 겪은 뒤 일부 지도층에서는 자아반성(自我反省)을 하게 되었고, 영정조의 민생안정·문화부흥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와 예술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

영·정조대에 이르러서는 가곡, 판소리, 기악 독주곡 등 다양한 음악문화가 창출되던 시기이며, 국책 음악 정비 사업 역시 뚜렷한 전기를 이루는 시기이다. 영조조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음악 관련사업으로는 영조 19년(1743년)에는 악학궤범 재간, 영조20년(1744)에는 국조속오례의보·국조속오례의보서례 등을 통해 궁중의례와 음악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영조조 편찬된 궁중 연향 의궤로는 『갑자년 진작의궤』(영조20년, 1744)와 『을유년 수작의궤』(영조41년, 1765)가 전한다. 특히 갑자년 진연의궤는 당시의 음악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당시 편찬악보로는 「속악원보」(1750년대 추정)·「대악후보(大樂後譜)」(영조35년, 1759)가 전하며 민간악보로는 「백운암금보」(1724-1791)등이 전한다. 이에 힘입어 음악과 무용도 발달하게 되어 순조(純祖)때는 많은 정재무가 창작되는¹²⁾바탕이 된다.

또한 청(淸)의 고증학(考證學)과 양인(洋人)의 표착에서 얻은 서양의 과학기술 등에 자극을 받아 성리학의 한계성을 느끼고 민생(民生)의 활로(活路)를 개척하는 학문이 대두되었으니 이것이 곧 실학(實學)의 발생이었다. 그러나 당시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중점을 둔 학자들은 대부분 재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한말(韓末)의 비운을 맞게 되었다.

조선 중기 후반 이후에는 기존 성리학이 국가재정의 파탄, 민생고 등의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모순이 나타나자,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반발로서 실학(實學)이 일어났다. 실학자들은 민생의 안정과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

12) 김매자(1995). 『한국 무용사』, 삼신각, p. 153.

을 모색하였고 높은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실학은 이론과 관념론에 치우치던 성리학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역사와 현실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학, 역사학, 지리학, 자연과학, 농학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광범한 연구를 하였다. 실학은 영조, 정조 시대에 융성하였으며, 정조는 규장각(奎章閣)이라는 학문 연구소에 실학자들을 등용하여 많은 유용한 서적이 편찬하였으며 정약용과 같은 큰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어린 왕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외척세력들이 왕권을 압도하고 이른바 세도정치(世道政治)가 시작되었다. 세도정치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정치의 문란(紊亂)을 가져왔으며, 그 피해는 농민에게 파급되었다. 여러 가지 국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쪼들린 농민들은 유민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민란이 빈발하였다. 홍경래의 난은 지방에 대한 차별대우에 분격하여 일어났으며, 그 뒤에 일어난 진주민란의 경우는 포악한 관리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계속된 민란은 세도정치에 의해 병든 양반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 점점 민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다. 천주교가 서울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동학은 농촌 속에서 자라났다. 유교의 윤리와 신분제를 배격하고 조선의 현실을 부정하는 천주교와 동학의 교세가 번창함에 따라 이를 꺾기 위해 탄압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1863년 고종(高宗)이 즉위하면서 그의 생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정치의 실권을 잡았다. 그는 세도정치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단성 있는 개혁 정치를 단행하였다. 그동안 잘못된 정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를 재정비하여 부국강병을 지향하려 하였다. 또한 쇄국정책을 써서 서구열강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1876년 문호(文豪)를 개방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서양의 근대문명을 수용하게 되었다. 개항이 외세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에서는 개화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2.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

조선 건국 후 태조부터 단종 때까지 궁중의 문화정책기관은 고려의 전통을 이은 전악서(典樂署)·아악서(雅樂署)·관습도감(慣習都監)과 조선 초 새로 설치된 악학(樂學)에서 담당하여 그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였고 특히 봉상시(奉常寺)는 종묘제례악 연주 가운데 춤과 노래를 관장하였으며, 봉상시 소속이 재랑과 무공이 종묘제례악의 연주 중 등가(登歌)의 노래와 문무, 무무를 연출한 것으로 보아 아악만을 담당했던 전악서, 아악서와는 차이를 보였다. 세조 3년(1457년)에 전악서와 아악서, 봉상시는 장악서로 악학과 관습도감은 악학도감으로 개편되었으며, 1466년 장악서가 악학도감의 업무를 흡수하면서 궁중음악 및 무용에 대한 행정·연주활동 등이 일원화되었다. 그 후 1470년 성종 때 장악원으로 개칭되어졌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맞이하게 된 조선 중·후기의 문화정책은 조선 전기 세종과 성종대부터 이어온 찬란한 문화가 몰락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장악원은 연방원으로 바뀌고 예악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성종의 즉위로부터 이어진 척불정책은 연산군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렀고 지난날의 사화(士禍)로 거세되었던 사림과 유학자들을 적극 등용하게 되었다. 그들이 실시한 도학정치로 인해 불교는 더욱 억압받게 되었다.

당시 원각사는 연산군과 중종대의 척불시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찰로 연산군은 각 사암을 폐하고 사찰 토지를 몰수했으며, 성내 비구니들을 궁중의 종이나 관노로 삼기도 하는 등 불교를 유린했다.

11년(1505) 9월 30일

장악원을 연방원으로 개명하라

여의로서 21세부터 30세까지의 자색이 있고 종사하는 직업에 정통하며 병이 없고 남의 집 사람이 되지 않은 자 50인을 예조가 전의감, 혜민서(惠民署)의 제조(提調), 내의원(內醫院)의 당상과 함께 간택하여 아뢰라.¹³⁾

위의 사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산군은 즉위 10년(1504) 원각사에 기생과 악사를 관리하는 장악원을 옮기도록 하고 전국에서 뽑아 올린 기생 1200여명과 악사

13) 민족문화문고간행회(1986). 『연산군일기』 8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p. 423.

1000여명, 감독 40여명을 거주하도록 하였다.¹⁴⁾ 연방원(聯旁院)은 연산군때 생겨난 장악원(掌樂院)의 임시기관으로써, 1504년 연산군이 조선 세조 11년(1465)에 세워진 원각사(圓覺寺)를 ‘연방원(聯芳院)’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예악행정 업무를 이곳에서 행하였다. 과거출신의 행정직 관리들과 악공, 악생, 무동 및 여기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생 및 악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관직에는 당상관 제조(提調) 4명, 당하관 정(正 정3품) 1명, 부정(副正 종3품) 1명, 첨정(僉正 종4품) 1명, 주부(主簿 종6품) 1명, 직장(直長 종7품) 1명, 태사(泰事) 1명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조선 전·중·후기 문화정책기관의 변천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인하여 연방원은 장악원(掌樂院)으로 복귀되고 악에 대한 행정업무와 연중활동 일체를 관장하는 업무를 맡는다. “장악원은 전통적으로 3개의 관직으로 구성되었는데 과거출신의 양반관료로 구성된 정직(正職)과 중인, 악생, 악공출신의 행정관료(遞兒職)로 구성된 잡직(雜職), 그리고 실제로 음악연주를 담당했던 악생, 악공, 관현맹 등이 있었다.”¹⁵⁾ 실제적인 음악을 담당했던 이들은 악생과 악공이었다. 악생이 담당했던 과목은 삼성(三性)·문무(文舞)·무무(武舞)이고 악공이 담당했던 과목은 향·당악 25가지이다.

선조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14년(1636)까지 약 반세기 동안에 정유재란이 선조30년(1597)에 있었으므로, 17세기 전후로 네 차례의 크고 작은 전란이 있었다고 하겠다.¹⁶⁾ 조선시대 전통음악의 본산지였던 장악원도 이러한 국란의 와중에서 예외일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회와 당쟁으로 인하여 조선왕조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국란을 겪으면서 장악원의 악생과 악공들이 죽거나 그동안 얽매어 있던 장악원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서 악공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임진병화(壬辰兵火)로 인하여 약 10년 동안 장악원의 활동과 모든 종묘제향의 악가무가 제약되었고, 병자호란 이후 장악원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14) 『만불신문』 제91호, 불기2541년 9월 20일 토요일자.

15) 현보람(2005). 조선시대 무용정책기관에 대한 사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1.

16) 앞의 글, p. 80.

〈표 2〉 조선 전·중·후기 문화정책기관의 변천과정

시기	왕 조	문화정책기관	소속기관	설립년도	기 타			
조선 전기 (1392- 1494)	태조(1392-1398)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 관습도감(慣習都監), 악학(樂學), 봉상시(奉常寺)		1392	1392년(태조 1) 봉상시 설치 1409년(태종 9) 일시 전농사(典農寺) 1420년(세종 23) 다시 봉상시로 개칭됨			
	정조(1398-1400)							
	태종(1400-1418)							
	세종(1418-1450)							
	문종(1450-1452)							
	단종(1452-1455)							
	세조(1455-1468)					장악서(掌樂署),		1457
예종(1268-1469)	악학도감(樂學都監)							
성종(1469-1494)	장악원(掌樂院)							
조선 중기 (1494- 1800)	연산군(1494-1506)	연방원(聯芳院)	예조 (禮曹)	1504년	조선 전기 성종 때의 명칭으로 복원			
	중종(1506-1544)	장악원(掌樂院)		1506년				
	인종(1544-1545)							
	명종(1545-1567)							
	선조(1567-1608)							
	광해군(1608-1623)							
	인조(1623-1649)							
	효종(1649-1659)							
	현종(1659-1674)							
	숙종(1674-1720)							
	경종(1720-1724)							
	영조(1724-1776)							
	정조(1776-1800)							
	조선 후기 (1800- 1894)					순조(1800-1834)	장풍원(掌漕院)	궁내부 (宮內府)
고종(1863-1907)			협률과(協律課)		장예원 (掌禮院)	1897년		
		교방사(教坊司)		1900년	명칭 변경			
		장악원(掌樂院)	예식원 (禮式院)	1905년	명칭, 소속기관 변경			
순종(1907~1910)		장악과(掌樂課)	장예원 (掌禮院)	1907년	축소 개편됨			

10년 동안 제례를 올리지 못한 사건은 후에 장악원을 바로잡아 국례를 다시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악공들의 충원에 대한 어려움은 인조 16년(1638) 대에 이르러 더욱 극심해졌다. 조선 전기 장악원의 악공 및 악생의 수는 악공이 441명, 악생이 185명으로 모두 626명이었는데 전란에 의해 흩어지고 사망하여 악공 70명, 악생 30명인 총 100명으로 장악원의 전통을 지탱하게 되었다.

인조 25년(1647)에 이르러 병자호란 이후 약 10년간 정지되었던 종묘제향과 정악이 복구되어 장악원의 업무는 정상으로 되돌아왔으며, 종묘 춘향대제에 음악과 일무가 다시 사용되는 등 이후 다른 제향에서도 음악이 부활되었다. 영조 원년(1725)에는 장악원의 기구도 거의 회복되어 제조 이하 766명의 행정직 및 연주직을 두게 되었다. 이렇듯 조선 중기의 문화정책은 조선 전기 세종조의 찬란했던 예악만큼은 이르지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게 된다.

조선 후기 고종 31년(1894)에 이르러 예조(禮曹)에 소속되었던 장악원이 궁내부(宮內府) 소속 장풍원(掌漕院)으로 명칭과 소속기관을 변경하게 된다. 고종 34년(1897)에는 장예원(掌禮院) 소속 협률과(協律課)로 명칭과 소속기관을 변경하였고, 고종 37년(1900)에는 협률과(協律課)에서 교방사로 명칭만 변경하게 된다. 고종 42년(1905)에는 예식원소속 장악원으로, 고종 44년(1907)에는 장예원 소속 장악과로 명칭과 소속기관을 변경하였다.

융희(隆熙) 4년(1910) 8월 22일 한일합병을 맞으면서 같은 해 12월에는 모든 직제가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로 바뀌는 법이 발표되고 그 다음해인 1911년 2월 1일에 시행되면서 장악부는 이왕직악대(李王職雅樂隊)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잇게 된다.

〈표 2〉의 조선 초·중·후기 문화정책기관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악원이란 명칭은 성종 때 개칭되어진 이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차례 명칭이나 소속기관의 변화를 가진 것은 그 당시 정치의 주체였던 왕이나 지배층들이 악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의 정도는 악이 정치에 미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또한 조선 중·후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 악을 관장하던 기관이 예조에 소속되어 왔다는 것은 악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앙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 음악정책과 악론(樂論)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춤의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이론을 성립하면서 당대 예악의 제도화를 이끄는 데 일조하였다.

3. 조선 중·후기 정재 연희종목 양상

조선 중·후기의 정재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던 정재에 비해 향악으로서 정체성이 강해지면서 내용과 형식에 다양성을 엿볼 수 있으며, 정재의 발전과 증대를 통해 예술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이에 조선 중·후기에 연희된 정재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전·중·후기 연희된 정재종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조선 전·중·후기에 연희된 정재종목

시 기	향악정재(鄕樂呈才)	당악정재(唐樂呈才)
조선 전기 (1392- 1494)	「보태평(保太平)」, 「봉래의(鳳來儀)」, 「정대업(定大業)」, 「처용무(淒容舞)」, 「향발무(響鉢舞)」, 「학무(鶴舞)」	「곡파무(曲破舞)」, 「근천정(觀天庭)」, 「무애무(無導舞)」, 「몽금척(夢金尺)」, 「성택(聖澤)」, 「수명명(受命命)」, 「수보록(受寶錄)」, 「육화대무(六花隊舞)」, 「하성명(賀聖明)」, 「하황은(荷皇恩)」
조선 중기 (1494- 1800)	「광수무(廣袖舞)」, 「무고(舞鼓)」, 「아박무(牙拍舞)」, 「처용무(淒容舞)」, 「침수무(尖袖舞)」, 「초무(初舞)」, 「향발무(響鉢舞)」, 「학무(鶴舞)」	「몽금척(夢金尺)」, 「수명명(受命命)」, 「연화대(蓮花臺)」, 「포구락(拋毬樂)」, 「하황은(荷皇恩)」, 「헌선도(獻仙桃)」
조선 후기 (1800- 1894)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경풍도 (慶豐圖)」, 「고구려무(高句麗舞)」, 「공막무(公莫舞)」, 「만수무(萬壽舞)」, 「망선무(望仙舞)」, 「박접무(撲蝶舞)」, 「보상무(寶相舞)」, 「사선무(四仙舞)」, 「영지무(影池舞)」, 「첩승무(疊勝舞)」, 「춘광호(春光好)」, 「춘대옥촉(春臺玉燭)」, 「춘앵전(春鶯囀)」, 「심향춘(深香春)」, 「향령무(響鈴舞)」, 「헌천화(獻天花)」	「연화대(蓮花臺)」, 「연백복지무(演百福 之舞)」,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제수창(帝壽昌)」, 「최화무(催花舞)」

조선 전기(1392-1494)에 연희되어진 정재종목은 향악정재로 「보태평(保太平)」, 「봉래의(鳳來儀)」, 「정대업(定大業)」, 「처용무(淒容舞)」, 「향발무(響鉢舞)」, 「학무(鶴舞)」가이 있었고 당악정재로는 「곡파무(曲破舞)」, 「근천정(觀天庭)」, 「무애무(無罽舞)」, 「몽금척(夢金尺)」, 「성택(聖澤)」, 「수명명(受命命)」, 「수보록(受寶錄)」, 「육화대무(六花隊舞)」, 「하성명(賀聖明)」, 「하황은(荷皇恩)」이었으며, 이중 육화대무와 곡파무는 고려시대의 당악정재로 조선시대에 들어 복원된 정재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전기에는 다양한 정재종목이 연희되었고 특히 고려시대의 정재가 복원되어졌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문화정책기관의 잦은 변모로 미루어 보면 조선전기에는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정치·사회·예술 등 모든 면에서 제도가 확립되어진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조선 중기 연산군(燕山君)이 등극하면서부터 임금의 온갖 폭정과 방탕으로 많은 제도들이 붕괴 내지 혼미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홍문관(弘文館)과 사간원(司諫院)을 혁파(革罷)했으며, 사헌부(司憲府)를 축소하여 언로(言路)를 봉쇄하고, 세조 이상의 기제(忌祭)를 없애고¹⁷⁾ 일반민의 3년상을 역월제 단상(易月制短喪)으로 하는 등 온갖 폭정(暴政)이 행해진 것이다.¹⁸⁾ 이를테면 성리학의 이념에 입각한 모든 제도가 붕괴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504년(연산군 10)에 “흥청(興淸)·운평(運平)·광희(廣熙)라 하라. 소위 흥청이란 사예(邪穢)를 깨끗이 씻으라는 뜻이요, 운평은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어떠한가?”¹⁹⁾하고, “흥청악(興淸樂)은 300명, 운평악(運平樂)은 700명을 정원으로 하고, 광희도 또한 증원하라.”²⁰⁾고 한 이후에도 여기(女妓)의 수를 계속 늘려 그 수가 수천명이 되어 거의 만명에까지 이를 정도였다.²¹⁾ 이것은 연산군 자신의 유흥(遊興)과 방탕(放蕩)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흥청거리다’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²²⁾된 것이다.

17) 『燕山君日記』, 권60, 15a15-16(cws, 권14, 11년 11월 28일(乙酉), p. 30.

18) 『燕山君日記』, 권32, 1a1-4(cws, 권13, 5년 1월 3일(癸亥), p. 341.

19) 『燕山君日記』, 권56, 31a3-4(cws, 권13, 10년 12월 24일(庚辰), pp. 678-679.

20) 위의 글, p. 679.

21) 『燕山君日記』, 권61, 25b13(cws, 권14, 12년 3월 27일(丁巳), p. 46.

22) 박영규(1996).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도서출판 들녘, 재인용.

중종이 즉위하면서 정전(正殿)과 희연(稀宴)에는 여악(女樂)을 쓰지 않도록 하고 내연(內宴)에만 여악을 쓰도록 하는 등 문란해진 악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1537년(중종32)에는 「정대업」·「연화대」·「몽금척」·「헌선도」 등의 정재는 잡희(雜戲)에 가까우므로 불가용(不可用)이라는 장악원의 건의에 의해 중국 사신이 왔을 때에는 「수명명」·「하왕은」·「하성명」 등을 대신 상연하였다. 그때 그 악명(樂名)이 무어나고 물었을 때 황황자화(皇皇者華)·녹명(鹿鳴)·천보(天保)·사모(四牡) 등의 가명으로 대답하였다.²³⁾

1551년(명종 6)에 정사룡(鄭士龍)의 상언(上言)으로 아악교정청(雅樂校正廳)이 설치되고, 악가 홍선종(洪善終)·악공 허억봉(許億鳳)·이무금(李無琴) 등과 함께 금보(琴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²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반세기에 걸친 국란으로 “물력이 탕갈되고 악공과 악생이 많이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해, 이후 10년이나 종묘(宗廟), 사직(社稷), 문묘(文廟), 산천(山川) 제사에 음악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²⁵⁾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1597년(선조 30)에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다시 일어남으로써 수년 동안의 대전란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고 전적(典籍)이 소실되었다. 다행히도 『악학궤범』이 소실되지 않아 장악원 전악(典樂) 한덕홍(韓德弘), 임환(林桓)등에 의해 이 책을 중교(重校)하여 여섯 달 만에 간행하게 된다. 1646(인조 24) 9월4일 「악장등록」(樂掌謄錄) 기록에 보면, 1627년(인조 5)에는 악기수개청(樂器修改廳)이 설립되기도 하였다.²⁶⁾

전란이 휩쓸고 간 그 이듬해인 1637년(인조 15)에는 지방에서 쓰던 비파(琵琶)·장구·거문고·아쟁(牙箏)·무고 등을 전라·경상도 등지에서 가져다 써야겠다고 예조(禮曹)에 보고한 바 있고, 이러한 여러 악기를 수집하여 관기(官妓)로 하여금 갖고 오도록 한 바 있다.²⁷⁾

23) 『中宗實錄』, 권84, 11a5-6(cws, 권18, 32년 3월 11일(庚寅), p. 41.

24) 이희병(2005). 朝鮮時代 呈才의 樂正에 관한 研究,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1.

25) 『仁祖實錄』, 권46, 73b15-74a5(cws, 권35, 23년 9월 28일(丙子), pp. 241-242.

26) 宋芳松, 『樂掌謄錄研究』, 民族文化叢書 8(京山: 嶺南大學校 民俗文化研究所, 1980), p. 95.

27) 위의 글, p. 94.

1646년(인조 24)에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의 복설(復設)을 1년 앞두고 악기(樂器)·악공(樂工)·악생(樂生) 등을 정비했으며, 이듬해인 1647년(인조 25)에 종묘 춘향대제(宗廟春享大祭)에 다시 음악과 일무(佾舞)가 사용되고 다른 제향(祭享)에서도 부활되었다.²⁸⁾

1677년(숙종 3) 11월에는 대왕대비(莊烈王后)와 왕대비(明星王后)에게 진연을 올린 후 대부에서 천인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지방의 70세 이상 된 노인에게 쌀을 내리고 1706년(숙종 32) 8월 27일에는 대전진연을 28일에는 중궁진연을 행하게 된다.

영조는 조선시대 군왕 중 가장 장수하였고 재위기간도 가장 길었으며, 뛰어난 신념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에 힘써 세종이후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영조 대에 이르러 예악이 소홀한 것에 대해 개탄하고, 당대의 예악을 지난날의 찬란했던 상태로 복구하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상당부분 남아져 있다.

1743년(영조 19)에 외연(外宴)과 내연(內宴)의 정재도 정비시켰으니, 즉 외연에 쓸 정재로 1작(節)에는 「초무(初舞)」, 2작에는 「아박(牙拍)」, 3작에는 「향발(響鉢)」, 4작에는 「무고(舞鼓)」, 5작에는 「광수무(廣袖舞)」, 6작에는 다시 「향발」, 7작에는 다시 「광수무」를 추도록 정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²⁹⁾

한편 내연(內宴)에 쓰던 정재로는 「헌선도」·「수연장」·「오양선」·「포구락」·「연화대」·「몽금척」·「봉래의」·「아박」·「무고」·「치용무」·「첨수무(尖袖舞)」 등이 있었는데, 연향에서 추는 정재의 단자(單子)는 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즉 장악원에서 준비한 향악·당악 정재의 단자를 왕에게 바치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왕이 낙점(落點)하여 결정했던 것이다.³⁰⁾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正祖)도 악정(樂政)에 힘을 기울인 점을 볼 수 있다. 즉, 1777년(정조 원년)에 악기도감(樂器都監)을 두어 경모궁(景慕宮) 악기를 조성하였으며, 외연과 내연의 정재를 구별시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이 그것인데, 그 내용은 영조 때와 비슷하였다.³¹⁾

28) 이희병(2005). pp. 113-114.

29) 『英祖實錄』, 권58, 25b12-147(cws, 권43, 19년 9월 19일(戊戌), p. 115.

30) 성경린(2000). 『한국의 무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67.

31) 이희병(2005). p. 132.

이러한 영조·정조의 악정의 부흥으로 정비된 악무(樂舞)는 조선 후기 순조(純祖) 대에 들어 효명세자(孝明世子: 익종(翼宗)에 의해 특히 정재 부문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맞는다. 효명세자는 적극적으로 정재 창사를 예제(睿製)하였고, 김창하는 그에 어울리는 정재를 창작함으로써 조선 후기에 정재의 예술적 가치를 한차원 끌어 올렸던 것이다.³²⁾ 여기서 ‘예제(睿製)’ 또는 ‘예제정재(睿製呈才)’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제는 순조 연간 특히 효명세자의 대리청정기간(1827-1830)을 통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³³⁾

1828년(순조 28)에 연희된 진찬과 진작에서는 향악과 당악이 한데 섞여 공연됨으로서 향악과 당악의 구별이 없어져 사실상 당악의 향악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거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즉 당악정재가 향악화 되어가며 향악정재는 26종목, 당악정재는 12종목으로 향악정재가 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구성 또한 매우 자유로워졌다. 춤의 시작과 종결을 알리는 앞·뒤 구호의 절차도 없어지고, 원무 중 중무의 치어 대신 창사(唱詞)를 불렀다. 또한 전체 무원의 창사도 한문의 창사를 썼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왕의 선정을 치하하고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이나 풍경을 표현하는 등 보다 내적인 구성에 치중하였다.

악(樂)·가(歌)·무(舞)를 기본으로 이루어졌지만, 「보상무(寶相舞)」처럼 여흥적인 놀이로서 구성되는 것도 있고, 또 「검기무(劍器舞)」나 「첨수무(尖袖舞)」처럼 노래 중심으로 구성된 정재도 있다.

위와 같은 변화의 주된 요인은 역대왕조의 권력이양이 무력을 통한 물리적 변수에 작용되면서 이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의식 같은 것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러한 시대적의식의 주된 흐름이 문물의 계시적인 보전을 어렵게 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정재로는 고려 때부터 전하는 「무고(舞鼓)」, 「아박(牙拍)」, 「무애(無罽)」가 있고, 조선 전기부터 전하는 「봉래의(鳳來儀)」, 「향발무(響鉢舞)」, 「학무(鶴舞)」, 「처용무(處容舞)」가 있고, 조선 후기 순조 무렵에 만들어진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검기무(劍器舞)」, 「경풍도(慶豐圖)」, 「고구려무(高句麗舞)」, 「만수무(萬壽舞)」,

32) 위의 글, p. 172.

33) 위의 글, p. 134.

「박접무(撲蝶舞)」, 「사선무(四仙舞)」, 「선유락(船遊樂)」, 「첨수무(尖袖舞)」, 「첩승무(疊勝舞)」 등이 있다.

조선 후기 정재는 궁중의식이기는 하지만 의식보다는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춤이 외적 구성에서가 아닌 내적 구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춤다운 춤, 즉 민족적 정서를 되살림으로서 조선 전기나 중기에 비해 예술적으로 보다 발전되고 완결된 표현을 추구하였다.

헌종과 철종은 재위하는 동안 단 한차례의 국가적 연향을 베풀었는데, 헌종은 1848년(헌종 14) 3월에 창경궁 통명전에서 순원왕후에게 진찬을 올렸고, 철종은 1857년(철종 8)에 대왕대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에게 진찬할 때 대비인 신정왕후(神貞王后)도 함께 생신축하연을 열어 3월15일 진찬과 17일 회작으로 큰 행사를 열었다.

갑오경장 때 생겼던 정치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궁내부와 의정부가 분리되었고, 이러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따라서 장악원이 교방사로 개칭되었으며, 소속 또한 예조에서 궁내부(宮內府) 장예원(掌隸院)으로 이속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과 열강들의 북새통 속에서도 고종때에는 각종 연향을 빈번하게 열게 된다.

고종은 동도서기의 개화주의자로서, 영·정조 등 선왕들이 수립해 물려준 민국 정치이념(民國政治理念)을 바탕으로 국(國)과 군(君)을 일치시킨 상태로 국권을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국권강화의 일환으로 고종은 각종 연향을 통해 왕실의 존엄과 문화를 내외에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변화와 정재 연희종목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기관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악원이란 명칭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했음으로 보아 당대의 정치 주체자들이었던 왕이나 지배층들이 악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관심의 정도는 악이 정치에 미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둘째, 조선 전·중·후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 악을 관장하던 기관이 예조에 소속되어 왔다는 것은 악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앙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조선 중기 중종은 연산군의 유흥과 방탕으로 인해 문란해진 악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함에 연방원을 장악원으로 복귀하고 악에 대한 행정업무와 연중활동 일체를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악원의 악생이 담당했던 과목은 「삼성(三性)」·「문무(文舞)」·「무무(武舞)」이고 악공이 담당했던 과목은 향·당악 25가지였다.

넷째, 조선 중기 인조(仁祖) 25년(1647)에 이르러 병자호란 이후 약 10년간 정지되었던 종묘제향과 정악이 복구되어 장악원의 업무는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종묘춘향대제에 음악과 일무가 다시 사용되는 등 이후 다른 제향에서도 음악이 부활되었다.

다섯째, 조선 중기 영조(英祖) 원년(1725)에는 장악원의 기구도 거의 회복되어 제 조 이하 766명의 행정직 및 연주직을 두게 되었다. 영조는 예악이 소홀한 것에 대해 개탄하고 당대의 예악을 지난날의 찬란했던 상태로 복구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조선 전기 세종조의 찬란했던 예악만큼은 이르지 못하였지만, 조선 중기의 문화정책은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게 된다.

여섯째, 조선 중기 영조(1743년)는 외연(外宴)에 쓸 정재로 1작(箭)에는 「초무(初舞)」, 2작에는 「아박(牙拍)」, 3작에는 「향발(響發)」, 4작에는 「무고(舞鼓)」, 5작에는 「광수무(廣袖舞)」, 6작에는 다시 「향발」, 7작에는 다시 「광수무」를 추도록 정비하였다.

일곱째, 조선 중기 영조 대에 내연(內宴)에 쓰던 정재로는 「헌선도」·「수연장」·「오양선」·「포구락」·「연화대」·「몽금척」·「봉래의」·「아박」·「무고」·「처용무」·「첨수무(尖袖舞)」 등이 있었는데, 장악원에서 준비한 향악·당악 정재의 단자를 왕에게 바치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왕이 낙점(落點)하여 결정하였다.

여덟째, 조선 후기 순조 연간 효명세자(孝明世子: 익종(翼宗)의 대리청정기간을 통해 정재의 황금기를 맞는다. 효명세자는 적극적으로 정재 창사를 예제(睿製)하였고, 김창하(金昌河)는 그에 어울리는 정재를 창작함으로써 조선 후기에 정재의 예술

적 가치를 한 차원 끌어 올렸던 것이다. 왕세자가 승정대리정무를 맡은 것은 19세의 약관으로부터 22세를 일기로 죽기까지 겨우 4년간의 집정이었지만 세자의 정재에 기여한 업적은 대단히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아홉째, 조선 후기 순조(1828년)에 연희된 진찬과 진작에서는 향악과 당악이 한 데 섞여 공연됨으로서 향악과 당악의 구별이 없어져 사실상 당악의 향악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거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열째, 갑오경장 때 생겼던 정치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궁내부와 의정부가 분리되었고, 이러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따라서 장악원이 교방사로 개칭되었으며, 소속 또한 예조에서 궁내부(宮內府) 장예원(掌隸院)으로 이속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과 열강들의 북새통 속에서도 고종 때에는 각종 연향을 빈번하게 열게 된다.

위와 같이 조선 중·후기 문화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 음악정책과 악론(樂論)의 개진은 궁극적으로 춤의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이론을 성립하면서 당대 예악의 제도화를 이끄는 데 일조하였으며, 왕조별 문화정책 뿐 만 아니라 연희되어진 정재 또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 전기의 화려했던 문화에 비해 조선 중기에는 잦은 국란을 겪으면서 문화정책기관의 방치와 연희되어진 정재종목이 현저히 줄어든 점을 미루어보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쇠퇴기를 맞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중기 중종 때부터 발전되어져 조선후기 고종에 이르러 문화양상이 확대되어졌다. 특히 문화정책기관의 잦은 개칭과 업무의 변동양상을 보였고 연희되어진 정재의 종목의 확대로 보아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조선시대 문화정책기관과 정재의 연희종목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되리라 보며, 조선 중·후기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매자(1995). 『한국 무용사』, 삼신각.
민족문화문고간행회(1986), 『연산군일기』 8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박영규(1996).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도서출판 들녘.
- 성경린(2000). 『한국의 무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宋芳松, 『樂掌謄錄研究』, 民族文化叢書 8(京山: 嶺南大學校 民俗文化研究所. 1980).
- 안제승(1987). 『한국무용사』, 경희대학교 출판국.
- 『燕山君日記』, 권32, 1a1-4(cws, 권13, 5년 1월 3일(癸亥)).
- 『燕山君日記』, 권56, 31a3-4(cws, 권13, 10년 12월 24일(庚辰)).
- 『燕山君日記』, 권60, 15a15-16(cws, 권14, 11년 11월 28일(乙酉)).
- 『燕山君日記』, 권61, 25b13(cws, 권14, 12년 3월 27일(丁巳)).
- 『燕山君日記』, 권56, 29b15-30a1(cws, 권13, 10년 12월 22일(戊寅)).
- 『英祖實錄』, 권58, 25b12-147(cws, 권43, 19년 9월 19일(戊戌)).
- 『仁祖實錄』, 권46, 73b15-74a5(cws, 권35, 23년 9월 28일(丙子)).
- 『中宗實錄』, 권84, 11a5-6(cws, 권18, 32년 3월 11일(庚寅)).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8). 『문화예술총서 10. 문화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성기숙(2001). 조선 후기 궁중정재의 극장공간성 연구, 대한무용학교 제 29호.
- 이동연(2004).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6,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84-209.
- 현보람(2005). 조선시대 무용정책기관에 대한 사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만불신문』 제91호, 불기2541년 9월 20일 토요일자.
- 이희병(2005). 朝鮮時代 朶才의 樂正에 관한 研究,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논문투고일	2007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3일
심사완료일	11월 20일

Abstract**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Cultural Policies in Mid and Late Joseon Periods and the Patterns in Royal Court Dance**

Byungju Ahn
Professor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transformation of cultural policies in Mid and Late Joseon Periods and the patterns in royal court dance based on cultural historical background and cultural policy research, with emphasis on the said periods where there have been on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cultural policy organizations and songs and dances performed during court events. The reason for such emphasis is that Joseon Korea was the period of the most noticeable transformation and advancement regarding royal court performances in terms of Korean dance history, in particular, Mid and Late Joseon Periods, where a relatively smaller number of studies are available as related specifically to the examination of patterns of changes in cultural policies and court dance performances.

The limited scope of this study is to ensure full-scale investigation of patterns of music and dance entertainment performed in court that reflect the transformations in the cultural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cultural policies throughout Mid and Late Joseon Korea whose beginning can be traced back to Early Joseon Period. Examination of the patterns of cultural historical background, policy organizations and court dance items is also believed to shed light on the reasons behind the cultural changes, i.e., cultural depression and revival. Furthermore, the scope of this study will likely complement the body of research that has been rather overemphasizing certain periods in terms of Joseon Korea's royal court dance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musical policies and music theories implemented mostly by the cultural policy organizations in Mid and Late Joseon Periods had served as a tool to establish regulations, policies and theories regarding royal court dance,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riods' music, dance and decorum and that not only cultural policies but also court

entertainments were transformed as with the enthronement of each monarch.

As opposed to the magnificent cultural manifestations of Early Period, Joseon Korea in its Mid and Late Periods witnessed the relaxation in cultural policy organizations and the dramatic decrease in royal court dance items due to frequent wars and disturbances, which indicates the Dynasty was entering an era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ecline. Cultural patterns of Joseon Korea began to develop from King Jungjong in Mid Period and continued to expand, more or less, up to King Gojong in Late Period. Frequent re-naming and work scope changes, in particular, of those organizations were observed in this study and based on the expansion of court entertainment item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tability as well as high levels of interest in such areas were believed to be present.

keywords: Mid and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조선 중 · 후기), cultural policy(문화정책), royal court dance(정재), cultural policy organizations(문화정책기관), Patterns in Royal Court Dance(연희종목)